

# 가족형태별 모둠을 통한 창의적인 미래형 내집 꾸미기

한 지 혜\* (공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교육전공 박사과정)

김 선 호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중학교 3학년 가정교과의 '생활과 주거 환경' 단원은 집안의 가구 및 실내 장식품 등의 적절한 배치와 색채 조화 등을 통하여 집 꾸미기 능력을 길러주므로,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주생활 단원 실습은 현재의 학교 여건상 수업을 실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생활 단원 수업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보완하면서 좀 더 현실감이 있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모둠별로 살고 싶은 집의 형태를 정하여 실제로 평면도를 작성한 후 모형의 집을 만든 다음 스스로 고안한 여러 가지 가구를 배치해 보도록 학습 계획을 세웠다.

## 1. 학습 목표

- (1)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하면서 나의 집 꾸미기 체험
- (2) 토의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력 및 창의력 신장
- (3) 모둠을 통한 협동 학습으로 인성 교육 및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2. 학습 지도

모둠별로 가족 형태와 주거 양식을 결정하고 잡지 등을 보면서 모둠별 토의 수업을 한 후, 평면도를 그리고 모둠원들이 각각 실내 공간을 나누어 자기 공간에 대한 계획과 디자인을 하여 방 꾸미기를 하도록 하였다.

## 3. 창의적 결과물

수업의 전과정이 끝날 때 창의적으로 꾸민 작품에 대한 평면도, 집 꾸미기 과정 및 완성된 모형을 사진으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 4. 창의적 관점

가족 형태별 모둠을 통한 창의적인 미래형 내집 꾸미기 실습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현대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가족 해체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미래의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살고 싶은 집과 가구를 만들고 배치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창의력이 신장되고 수업에 대한 흥미도와 참여도가 높아졌으며,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여 진로를 탐색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모둠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성 교육은 물론 학생들 서로간에 협동심과 우정을 키울 수 있어 '신나는 학교'를 만들 수 있었다. 이밖에도 가정과 수업은 실생활과 접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둠별로 만든 집을 보고 장·단점을 토론하여 생활에 편리한 집을 꾸밀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적극적으로 가정 생활에 참여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